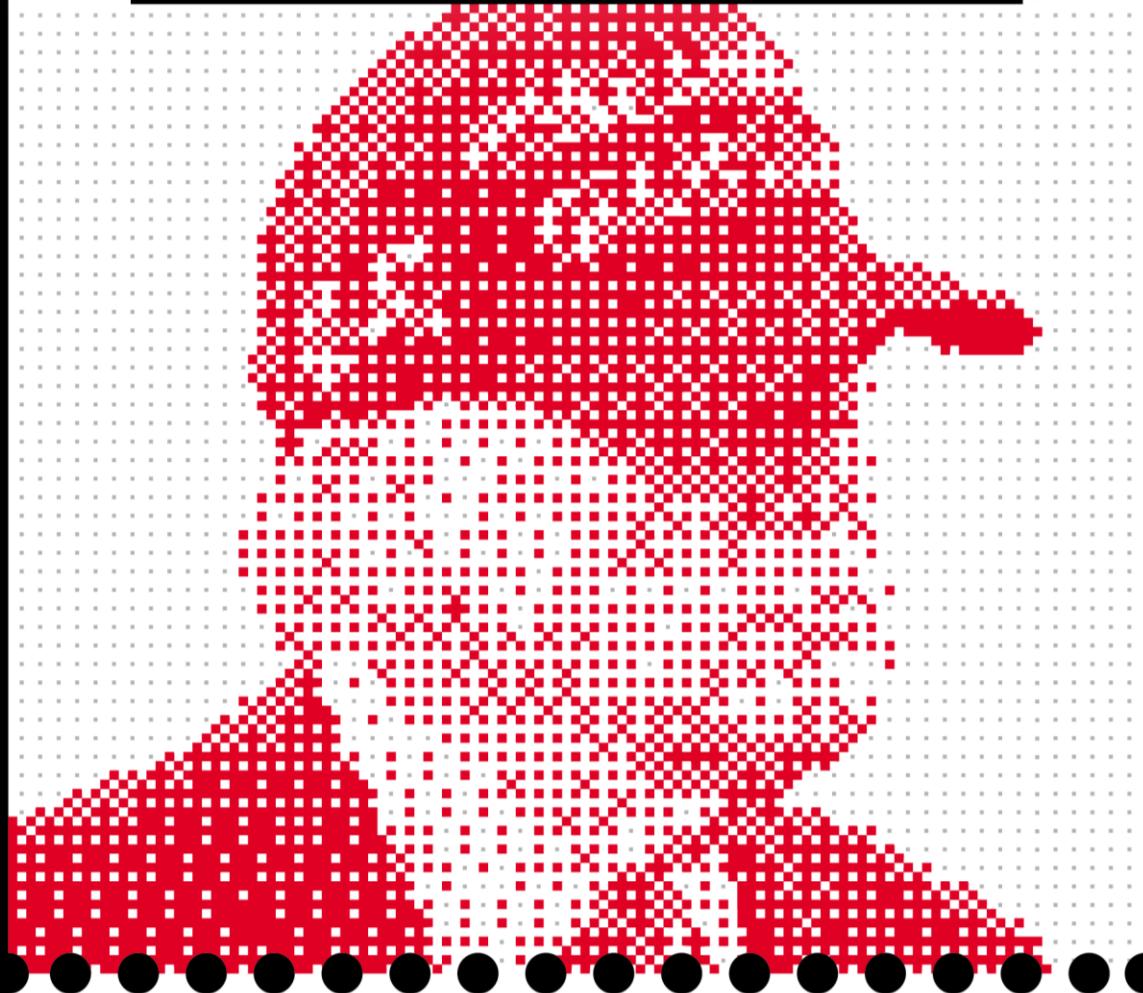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D.C.

01 MAGA는 사라지지 않을 구호다



Publisher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이영곤

Date

2025. 08. 13

Episode

01



우리가 미국에 가는 이유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현지에 직접 가보면 놀랍거나 설레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예상했던 것과 달라 의아한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재무제표, 공시, 뉴스 같은 정보에 더해져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일깨우곤 합니다.

미국에서 직접 발로 뛰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글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부 전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지에서 느낀 바를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보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발견한 투자 인사이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첫 행선지는 워싱턴 D.C.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정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 규제기관의 정책 변화, 재정정책과 대외정책의 방향성 같은 이슈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는 일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첫 행선지로 미국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 D.C.를 택한 이유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현지 기업 관계자는 물론, 다양한 연구기관과 싱크탱크도 찾아 정책 방향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숫자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흐름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정책과 시장을 연결해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이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세계 경제는 고금리와 공급망 재편, AI 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에게도 미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듯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취임 후 이런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전망해보고,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장기화된다면 대응 전략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 구조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투자가 필수인 시대,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래도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담아온 순간들이 투자 여정에 따뜻한 숨결 하나 보태기를 바라며,

2025. 08. 13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Intro. '자국 우선주의'는 계속될까?

워싱턴 D.C.는 미국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번 출장에서 백악관, 국회의사당은 물론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미국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같은 정책 연구소까지 워싱턴의 핵심 기관들을 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탐방하면서 느낀 건 'America First'라는 구호가 여기저기서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방문자센터 앞 노점에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The Great America'가 적힌 모자와 티셔츠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슬로건인데요. 공통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2 기 정부 출범 직후 높은 관세 정책, 제조업 부흥 등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제 정책들이 시행됐고 이는 상반기 주식시장을 크게 흔든 요인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될까요? 'MAGA'는 트럼프가 퇴임하면 함께 사라질 구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왜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럴 경우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Data-1]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



출처: 토스증권

[Data-2] 백악관 주변 노점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MAGA, America First 기념품



출처: 토스증권

1. '자국 우선주의'의 역사는 길다

다들 아시겠지만 워싱턴 D.C.라는 지명은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만큼 워싱턴 D.C.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날, 숙소에서 가까운 워싱턴 기념탑을 찾았습니다. 기념탑을 둘러싼 50 개의 성조기를 보고 있자니 건국 당시 13 개였던 주가 50 개가 된 지금까지 200 년 넘게 지속되어 온 미국 정치의 위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Data-3] 워싱턴 기념탑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50개의 성조기



출처: 토스증권

[Data-4] 워싱턴 기념탑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50개의 성조기



출처: 토스증권

1-a. 미국은 시작부터 '자국 우선주의'였다

이러한 미국 정치의 역사는 기념탑뿐 아니라 문서로도 남겨져 있습니다. 워싱턴 D.C. 국립문서관, 국회의사당 도서관에는 미국 정치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한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었는데요. 문서들을 훑어보면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는 건국 초기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고별사에서 말했습니다. "외국과의 영속적 동맹을 경계하라! (It is our true policy to steer clear of permanent alliances with any portion of the foreign world)"

또한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 발표한 '먼로 독트린¹'에는 고립주의적 자국 우선주의를 공식화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말은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의 체제 확장 시도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 (We should consider any attempt on their part to extend their system to any portion of this hemisphere as dangerous to our peace and safety.)"

역사 속 미국 대통령들의 말을 살펴보니, 건국 초기부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보다는 자국의 영토, 이익, 주권 수호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Data-5] 미국 건국 자료를 포함해 주요 역사, 정치 서적 등이 있는 국회의사당 도서관



출처: 토스증권

¹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외교 노선으로,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전쟁 및 동맹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내부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골자. 이 기조는 20세기 초까지 이어져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도 국제 개입 최소화 원칙이 유지됨.

1-b. 국회의사당 건축물에서 느낀 것

국회의사당을 방문할 때는 의회 전문 해설관(Docent)과 동행했는데요. 이 건축물에 미국의 정치 철학과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녹여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당 돔 천장에는 '워싱턴의 신격화(The Apotheosis of Washington)'가 그려져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신성한 존재로 묘사한 건데요. 자유의 여신과 승리의 여신 사이에 앉아 있는 조지 워싱턴의 모습에서, 미국 건국을 그만큼 특별한 사명을 지닌 일로 여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돔 내부를 둘러싼 벽화와 조각들에는 독립선언, 서부 개척, 남북전쟁 등 역사적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길을 개척해 온 미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특히 서부 개척의 경우, 영토 확장의 서사를 영웅적으로 표현하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본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외부 확장과 내부 결속을 동시에 강조하는 미국 중심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Data-6] 국회의사당 돔 내부 천장에 그려진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신격화



출처: 토스증권

[Data-7] 국회의사당 돔 내부에는 미국 정체성을 나타내는 벽화와 조각이 있다.



출처: 토스증권

[Data-8]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 토스증권

2. MAGA는 '트럼프 오리지널'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America First'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트럼프가 만든 구호가 아닙니다.

2-a. 1940년대에 이미 'America First Committee'가 존재했다

1930~40년대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들 수 있는데요. 1930년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 정부 때 제정된 이 법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929년 찾아온 경제 위기, 대공황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실업률 급등, 은행 파산, 중산층 붕괴 속에서 국민들은 해외보다는 자국 경제 회복을 우선시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Data-9]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트럼프 관세 정책 비교

	스무트-홀리 관세법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시기	1930년(대공황 직후)	2025년(트럼프 2기 출범 직후)
경제 배경	1930년, 대공황 직후 경제 침체, 농업/제조업 등 보호 필요성	2025년, 무역적자 심화, 제조업 침체로 자국 산업 보호 필요
정치적 배경	대공황 직후 민심 악화로 공화당 주도 보호무역 강화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민족주의와 경제적 자립 주장
주요 목표	농산물, 공산품 가격 보호 및 국내 고용 회복 통해 실업률 안정	미국 무역적자 축소, 미국 내 생산 확대로 제조업 부활
정책 형태	공화당 주도로 연방법에 관세 인상 조항을 명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무역법(301조, 232조) 활용해 관세 부과
주요 내용	2만 개 이상 품목 관세 인상, 평균 관세율 약 38% 수준 적용	상호 관세 25% 부과에 특정 국가와 품목엔 추가로 관세 부과
진행 현황	관세 부과 후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반발하며 보복관세 부과	25년 4월 부과 결정 후 7월로 연기, 이후 다시 한 달 추가 연기
경제적 영향	세계적 무역 축소 및 글로벌 수요 축소, 경제 침체 현상 확산	무역 긴장 고조, 실제 관세 부과 시 물가 상승 및 성장 둔화 전망

출처: 토스증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단체가 '미국우선위원회(America First Committee, 이하 AFC)입니다. 1940년대 AFC는 아이비리그 출신 지식인을 비롯해 총 8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국에 450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이들이 내세운 구호가 바로 'America First'였습니다.

'America First'는 당시의 대중 정서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고, 이는 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럽 지원을 검토했지만 AFC가 주도한 'America First' 운동과 의회 반대로 공식 군사 개입을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함에 따라 AFC는 해체되었으나, 전쟁 이후의 반공주의나 이민 제한, 방위비 감축 등의 조치는 AFC 단체의 이념과 이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정치 문화 속에 남아 있던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재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ata-10] America First Committee (AFC)

핵심 이념	미국 우선, 고립주의, 전쟁 반대
역사적 배경	제1차 세계대전 후유증, 내부 결속 정서 강화
경제적 배경	대공황 이후 미국 경기 침체 지속
주요 활동	제2차 세계대전(당시 유럽 전쟁) 개입 반대 운동
영향	자국민과 자국 경제를 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신 강조
해체 원인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 참전으로 해체

출처: 토스증권

[Data-11] 1940년대 America First Committee (AFC)의 로고



출처: 토스증권, 주요 언론사

[Data-12] 1940년대 America First Committee (AFC)의 포스터



출처: 토스증권, 주요 언론사

2-b. MAGA는 1970년대에 레이건이 처음 쓴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구호가 아닙니다. 제 40 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국방을 강화하고 보수적 가치를 회복해 미국의 위대함을 되찾자며 MAGA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직전인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자신감이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사실상 패배한 데다 소련이 대외 팽창 전략을 펼치던 시기였거든요. 미국의 경제 또한 고물가와 저성장에 시달리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레이건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MAGA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MAGA를 들고 나온 지금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중국의 추격,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고 불법 이민자와 인종 문제가 불거지며 보수층 중심으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높고,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됐고, 기술 패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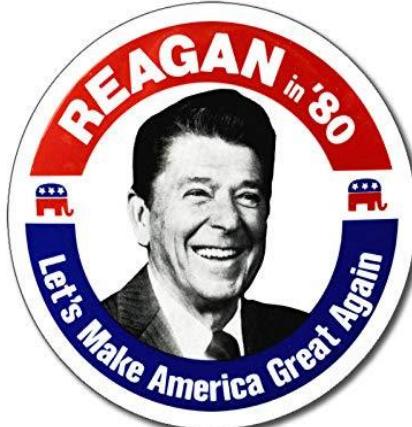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다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과거에 이미 제시됐던 MAGA, America First의 현대적 반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 정체성과 안보, 문화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Data-13] 1970~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MAGA 캠페인 로고



출처: 토스증권, 주요 언론사

[Data-14] 1970~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MAGA 캠페인 로고



출처: 토스증권, 주요 언론사

3. 바이든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가 새롭게 들고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미국 우선주의가 돌파구 역할을 했고, 심지어 MAGA 나 America First처럼 아예 구호도 똑같았습니다.

사실 트럼프 2 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미국 우선주의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46 대 대통령 바이든 정부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고 겉으로는 국제 협력과 동맹 복원을 내세웠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와의 차이점이 더 부각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 때 시행된 정책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들도 많습니다. 보조금과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해 미국 중심의 산업 블록을 형성하고,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 것입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산 부품 사용 및 현지 생산 조립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걸어,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 **반도체 지원법(CHIPS 법)**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고,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안보 기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편 것은 역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 제조업이 약화된 사이 중국은 어느새 제조업 강국이 됐고, 향후 중국이 희토류, 반도체 등 기술 핵심 자원을 패권 경쟁의 무기로 활용할 거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사실상의 '무역장벽'을 세운 거죠. 그래서 워싱턴 D.C. 현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바이든 버전의 MAG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주장했지만 미국 산업과 기술 주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보호주의가 내포되어 있어, 실질적 내용은 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ata-15] 과거 미국 주요 대통령들의 자국 우선 정책 사례

대통령	시기	정책	주요 내용	경제적 영향
제임스 먼로	1820년대	고립, 영역 보호주의	유럽과 상호 개입 및 간섭 거부, 관세법으로 섬유, 철강 등 보호	북부 제조업 발전에 기여
허버트 후버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대공황 직후 자국 산업 보호 위해 주요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	보복 관세, 경기 침체 악화
프랭클린 루즈벨트	1930~40년대	뉴딜과 산업 보호	대공황 극복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 무역보다 내부 결속	정책사업 통한 고용 창출
리처드 닉슨	1970년대	수입제한, 달러보호	금 태환 중단 후 수입품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 조치 단행	물가 급등, 경기 침체 유발
로널드 레이건	1980년대	전략적 보호무역	일본 견제 위해 특정 산업(자동차, 반도체)은 보호무역 전략	자동차 산업 일시 회복
로널드 레이건	1980년대	인위적 환율 조정책	재정/무역적자, 제조업 회복 위해 통화 절상 압박(플라자 합의)	달러 약세 및 엔화 강세
바이든	2020년대	반도체 지원법, IRA	미국산 부품 사용하면 보조금 지급, 중국 반도체 투자 제한	보조금 경쟁, 재정 부담

출처: 토스증권

4. 투자자 대응

지금까지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트럼프의 '취향'이 아니라 미국 정치 역사의 오랜 '전통'이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미국 우선주의는 한동안 지속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럴 경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금의 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투자자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읽고 산업별 정책 민감도를 평가하면 유망한 산업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등 전략 산업의 경우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가 간, 기업 간 성과 격차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산업별로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반도체:** 미국의 전략 산업으로 정부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거나 미국 내 생산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 및 트럭 판매 비중이 높은 미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회복과 정책 지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인해 단기 성장이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뚜렷합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 2차전지:** 전기차 판매 감소로 실적 둔화 우려가 존재하지만 중국산 배터리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 에너지:** 공급 확대 전략에 따라 LNG 생산과 수출 및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이 유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화석 연료 중심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방위:** 주요국들의 국방 예산 확대에 따라 수혜가 기대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외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강/화학:**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미국/비미국 지역에서 시장가격 및 기업환경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수혜가 기대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Data-16]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각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미국	미국 외 국가	투자전략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세제 혜택, 자국산 구매 우대 정책 등을 통해 미국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엔비디아, AMD 등은 중국 매출 일부의 미국 정부 납부가 지속되면 매출 증가에 비해 수익성 저하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생산 투자 확대 예상 -TSMC는 애리조나에,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공장 신설(증축) 추진할 전망 -중국 고립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기술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만큼 주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감세, 현지 생산 확대 등 정책 영향 고려해 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은 주가 변동성 커질 수 있음 -인텔(INTC), 마이크론(MU) 수혜 가능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으로 미국 기업은 수혜 입을 전망 -연비 규제 및 전기차 전환 압박이 완화되면 내연 기관과 트럭 판매 비중 높은 미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율 관세 회피 위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 건설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이전은 쉽지 않음. -중국, 멕시코 등 미국 외 생산시설 비중 높은 기업은 경쟁력 약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차 및 부품 생산이 미국 외 지역에 집중된 기업들은 전반적인 수익성 둔화 우려 -미국 내 내수 비중 높고 현지 생산시설 보유한 부품업체들에 주목 -포드(F), GM(GM)은 정책적 수혜 가능
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축소, 인프라 예산 삭감으로 단기 성장 둔화 우려 -테슬라는 글로벌 판매 다변화와 미국 내 수입차 가격 상승 효과로 충격 일부 완화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축소로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 가격 경쟁력 약화 -특히 중국 전기차는 고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울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산업 전반의 성장 속도 조절 우려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 -경쟁력 있는 업체 중심으로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 필요
2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에너지 정책 철회와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해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음 -테슬라는 외부 조달 비중 줄이고 자체 배터리 내재화 확대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라 2차전지 수요도 함께 둔화될 수 있음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높은 관세 부과될 경우 한국과 일본 업체들에게 반사이익 발생할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투자심리는 위축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접근은 유효함 -테슬라(TSLA) 배터리 내재화, 미국의 광물 자원 독립 전략과 관련된 업체 주목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공급 확대로 에너지 가격 안정될 전망 -미국의 LNG 포함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수혜 받을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급증할 전망 -미국 외 에너지 생산업체는 타격 불가피 -OPEC은 감산 통해 유가 방어에 나설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LNG 생산과 수출, 유통업체에 주목 -석유 채굴부터 유통까지 수직계열화 이룬 기업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업체도 주목 -그 외 소형 원전 업체들도 정책 수혜 기대
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국방예산 확대로 무기산업 성장 기대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등 동맹국 군사지원 동결로 미국산 무기 공급이 일부 축소되거나 자연될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맹국들이 대미 관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산 전투기, 한국산 전차 등 대안 확보에 나설 수 있음 -이는 미국 외 방산업체들에게도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군사 지원 축소는 동맹국의 방위 자립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미국 방산업체 외에도 다른 나라들의 방산업체에 관심 필요 -사이버보안, 드론 등 확장된 방위 기업도 주목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고율 관세로 미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회복 및 실적과 수익성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철강 시장은 미국과 미국 외 지역으로 양분화될 전망 -미국 외 지역 철강 가격 하락 압력 높아질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업체는 정책적 수혜 가능 -전기료와 에너지 비용 안정도 긍정적인 요인 -반면 미국 외 사업 비중 높은 기업들은 경쟁 심화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규제 완화와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로 미국산 제품의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규제로 인해 중국과 중동 업체들이 미국 외 지역으로 판매 확대할 경우, 가격 인하 압박과 글로벌 경쟁 심화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가격 안정 예상되는 만큼 저렴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주목 -미국 외 또는 중국 비중 높은 기업보다는 미국 내 사업 비중 큰 기업 중심의 대응이 유효

출처: 토스증권

마치며

이번 리포트에서는 'MAGA'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돌아봤을 때 미국 우선주의는 위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지금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한, 다시 말해 고물가와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산업·무역 정책에서 자국 중심 기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불러올 새로운 냉전적 경제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리포트 예고

미국 정부는 생각보다 더 중국 견제에 진심이다!

워싱턴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의외로 '기-승-전-중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만큼 미국 정부는 중국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특히 더 견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 미국은 경쟁국을 어떻게 압박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의 애널리스트와 배우자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